

‘광주 여성미술’ 모스크바에서도 빛났다

‘국제여성 미술제’ 정순이 회장 등 광주 18명 참가 서양화 등 19점 “현대적인 조형미 돋보인다” 찬사

광주지역 여성작가들이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문화수도 광주의 예술적 역할을 과시했다.

(사)한국미협 광주시지회(회장 정순이)는 지난 6일~11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모스크바 ‘Central House of Artists’에서 열린 ‘2013 모스크바 국제여성미술제와 포럼’에 참가해 한·러 양국의 네트워크 구축과 인적 교류를 모색했다. 이번 행사는 러시아 연방 여성의 날 100주년을 기념해 열린 것으로 광주미협과 이리다(Irida) 러시아 여성작가회(회장 마리아 에스몬트), 주 러시아 한국문화원, 러시아 인문대학 등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계속되는 ‘2013 국제여성미술제’는 ‘현대사회에서의 여성미술’을 주제로 한국을 비롯한 22개국 여성작가 200여 명이 참가했다.

광주에서는 정순이 회장을 비롯해 노정숙, 류현자, 전영화, 임정임, 홍지애, 윤혜옥, 박유자, 안경미 등 여성작가 18명과 박남희 교수(경북대 미대) 등 서양화, 한국화, 도예, 사진, 판화 등 19점을 선보였다. 지난 6일 오후 열린 개막식에는 마리아 에스몬트 회장과 유엔 치링 세계여성미술가협회회장 등 여성미술계의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참가해 대회의 위상을 높였다.

이날 개막식에서 유엔 치 링 회장은 인사말

을 통해 “오늘날 현대 여성미술인들은 여성으로서의 경험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작품에 반영해 문화적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면서 “이번 미술제가 국경을 초월해 여성적 미학이라는 새로운 예술세계와 가치를 재평가 받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미술제에서는 한국대표로 참가한 광주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관람객들로 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독일과 싱가포르 등에서 온 여성작가들은 “광주비엔날레 개최도시답게 현대적인 조형미와 실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인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어 7일~8일까지 이틀간 러시아 인문대학 6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포럼은 여성미술에 대한 사회와 문화, 예술, 환경 담론을 형성한 뜻깊은 자리였다.

‘동시대 여성미술의 단면과 사회적 관계속의 여성의 정체성’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정금희 전남대 예술대 교수와 박진현 광주일보 편집부 국장 겸 문화선임기자, 김영순 광주문화재단 정책팀장이 한국측 발제자로 나서 ‘페미니즘을 넘어서선 프리다 칼로와 나혜석’, ‘현대미디어 속의 여성-예술인 복지법을 중심으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와 여성예술활동’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러시아에서는 마리아 코토브스카이가 푸시킨 박물관 부연구감독, 나탈리아 카메네츠카야



지난 6일 러시아 모스크바 ‘Central House of Artist’에서 개막된 ‘2013 국제여성미술제’에서 관람객들이 작품들을 감상하고 있다.

(작가), 나탈리아 마바라코바(비평가) 등이 발제를 맡아 러시아 여성 예술가들의 정체성과 러시아 예술속의 사회의식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남희 경북대 교수는 “가부장적인 그리스 정교가 러시아 여성작가들의 삶과 예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했고 조안 마리 켈리 싱가포르 난양공대 미술학과 교수는 여성의 예술활동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순이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러 여성작가들의 예술적 정체성과 현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전세계 여성작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광주 작가들의 해외 무대 진출을 돕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모스크바=박진현 문화선임기자·jhpark@



박진현의 문화카레

미국 워싱턴 D.C 10번가에 위치한 포드극장(Ford's Theatre)의 시계는 ‘1865년 4월14일 밤 10시15분’에 멈춰서 있다. 에브라함 링컨(1809-1865) 대통령과 부인 메리가 27살의 연극배우 존 윌크스 부스(1838-1865)에게 피격을 당한 시간이다. 극장에 들어서면 1865년 오전 8시부터 암살된 10시15분까지 링컨의 시간 대별 동선들이 공연장 통로 벽면에 기록돼 있다. ‘그날’ 이후 148년이 흘렀지만

관객들이었다. 지난 2009년 12월 재개관과 함께 선보인 연극 ‘천국은 어두운 곳에 있다(The Heavens are Hung in Black)’는 4년이 지난 지금도 관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링컨 대통령의 역정과 고난을 그린 작품은 포드극장의 전시물(링컨 유품과 자료)과 함께 링컨의 삶과 업적을 되돌아 보게 한다.

또 한편의 5·18이 다가온다. 올해로 광주민주화 운동이 일어난지 33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5

굿모닝! 5·18

링컨 대통령의 암살현장은 그대로 보존돼 있다. 1932년 미 연방 정부가 국가사적지로 지정하고 링컨 대통령 탄생 200주년(2009년)을 기념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친 덕분이다.

하지만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글로벌 문화평소로 변신했다는 것이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났던 현장이지만 국경과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콘텐츠를 통해 워싱턴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하루 평균 방문객이 1만 여 명에 달한다.

지난 2011년 4월 취재차 들른 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평일에도 불구하고 극장 주변에는 입장권을 구입하려는 방문객들이 길게 줄지어 있었다. 마치 공연장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실제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포드극장의 상설 공연을 보러 온

월의 전곡화, 세계화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타 지역에서 온 국립 망월동 묘지 참배객들은 5월 한창의 송고한 가치를 느낄 만한 불거리를 잡지 못하고 광주를 떠난다.

5월을 예술로 승화시킨 문화행사 역시 빈약하기는 마찬가지. 5·18 33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와 전시회가 올해도 열리지만 매년 비슷한 내용이어서 이렇다할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5월주일이 끝나면 80년 5월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상설 공연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5·18은 광주만의 소중한 자산이자 매력있는 콘텐츠다. 다양한 발상과 스토리텔링을 덧입힌다면 얼마든지 글로벌 브랜드로 키울 수 있다. 전 세계인들이 5·18과 소통하게 될 ‘그날’을 보고 싶다. <편집부국장 겸 문화선임기자>

광주여성재단, 내일부터 ‘오월여성아카이브’전

광주여성재단은 16일부터 10월16일까지 광주여성전시관 ‘Herstory’에서 ‘1980년 5월, 광주여성들이 2013년 광주공동체에 전하는 메시지’를 주제로 ‘오월여성아카이브’전을 진행한다.

오월여성재단추진위원회가 기획하고,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와 5·18기념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전시는 광주여성재단이 수집한 5·18 관련 여성들의 사진, 방송, 구술, 문헌자료 등을 현대적 의미에서 재해석하는데 의미가 있다.

참여 작가와 작품은 ▲김윤영 ‘을

배미-해안의 여성’(설치) ▲노유승 ‘5·18여성 역사 드러나다!’(영상설치) ▲백상옥 ‘5·18 어머니의 마음’(설치) ▲김경란 ‘꽃잎이 진다고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설치) ▲려은 ‘기억의 건축’(사진일러스트) ▲박경현 ‘역사의 아픔을 상징하는 6칸의 책장-아카이브전시 책장’(설치) 등이다.

개막식은 16일 오후 2시로 전시작품설명,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나눔-주먹밥’ 작품 참여 등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62-670-053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호남 예술제 관악 입상자

<심사위원>
신상호(전북대 교수)
김연주(초당대 교수)
황성규(전남대 교수)
노수현(경희대 교수)
주민혁(광주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

◇클라리넷(초등 3, 4)
▲은상
1 최효영(광주송원 4)

◇클라리넷(초등 5, 6)
▲은상
4 김남현(광주송원 5)
5 이승준(광주송원 6)
7 허준희(광주송원 6)
▲동상
1 정수환(광주송원 5)
2 조건우(광주송원 6)
◇오보에(초등부)

▲은상
1 이주현(광주송원 6)
▲동상
2 진주연(광주송원 5)
3 정지유(광주송원 6)
◇트럼펫(초등부)
▲최고상
3 김평안(정암 6)
▲은상
1 박찬술(하남 6)

◇트럼본(초등부)
▲금상
1 조웅찬(광주송원 6)
◇마림바(초등부)
▲동상
1 임찬호(광주송원 4)
◇색소폰(초등부)

▲금상
1 박혁준(하남 6)
◇유포늄(초등부)
▲최고상
1 박민우(광주송원 6)
◇작은북(초등부)
▲동상
1 정승현(광주송원 5)
◇팀파니(초등부)
▲은상
1 오준원(광주송원 5)
◇호른(초등부)
▲은상
1 김영환(하남 4)
◇클라리넷(중등부)
▲금상

1 강다빈(여도 1)
▲은상
3 김영동(공양 1)

◇클라리넷(고등부)
▲최고상
4 최산하(전주예술 3)
▲금상
1 강하림(광주예술 2)
▲은상
2 이다은(전남예술 3)

◇오보에(고등부)
▲최고상
3 김수환(고려 3)
▲은상
2 김주은(순천매산여자 3)
▲동상
1 박재인(전주한일 1)
▲금상
6 변다빈(연제 6)
▲은상
3 정문경(광주송원 6)
8 박현영(살레시오 6)

◇플루트(초등 1, 2)
▲최고상
1 김민경(살레시오 2)
▲금상
3 김혜원(살레시오 2)
▲동상
2 김민지(광주송원 2)

◇플루트(초등 3, 4)
▲은상
1 남이주(광주송원 4)
2 유지후(삼육 4)
▲동상
3 김수지(광주송원 3)
4 정세령(살레시오 4)
5 조민서(광주송원 4)
7 이예진(살레시오 4)

◇플루트(초등 5, 6)
▲금상
6 변다빈(연제 6)
▲은상
3 정문경(광주송원 6)
8 박현영(살레시오 6)

▲동상
1 이하민(광주송원 6)
4 양혜림(광주계림 6)
5 나지환(광주송원 6)
7 김현지(광주송원 6)

◇플루트(중등 1, 2)
▲동상
1 문하원(화순 2)

◇플루트(중등 3)
▲금상
5 정혜빈(구례여자 3)
8 김혜령(광주중앙 3)
▲은상
4 김민정(살레시오여자 3)
6 최지율(여수안산 3)
▲동상
3 신연주(광양제철 3)
7 이현서(살레시오여자 3)

◇플루트(고등 1, 2)
▲금상
1 송승지(전남예술 2)

6 임나경(광주예술 2)
▲은상
10 선효정(광주예술 2)
▲동상
3 강소영(광양제철 2)
4 김현경(전주예술 2)
7 김선정(호남삼육 2)

◇플루트(고등 3)
▲최고상
20 황도연(1995년생)
▲금상
12 김수연(전대사대부설 3)
16 정진희(전주예술 3)
21 박수현(풍암 3)
▲은상
2 김예슬(여수충무 3)
13 김지후(광주예술 3)
17 이지혜(목포해인여자 3)
18 손미경(전대사대부설 3)
▲동상
11 이유빈(송원여자 3)
15 신혜지(광주경신여자 3)
19 백주현(전남예술 3)

새로운 패러다임의 거침없는 뉴스쇼



와

월~금 밤 9시 50분 방송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채널 19번 TV조선

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

최희준 TV조선 취재에디터

김미선 TV조선 정치부 기자